

2012년 1월

<http://ewhagirls.net/ny>

발행인: 이정화 편집인: 전명혜, 이화인



Ewha Newsletter

대뉴욕지구 이화여고동창회 연례만찬

2012 새해를 맞이하여 이화가족 여러분의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2월 4일 (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대동연회장, Grand Ballroom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 939-2555
- 회비: \$100 (1인당), \$180 (Couple)



이화여고 창립 125주년·총동창회 100주년 기념 음악회 (2011년 6월 1일 예술의 전당)

회장인사**이정화 (66)**

지난 2011년은 어느 해보다도 크고 작은 동창회 행사가 많았기에 특별히 이화인의 궁지를 자주 일깨워 주는 한 해였습니다.

이화창립 125주년 동창회설립 100주년을 기념축하하는 이화 여고대음악제와 여러 행사들이 서울 모교와 예술의 전당에서 5월~6월에 걸쳐 있어서 뉴욕동창회 동문들이 대거 참가했고, 또한, 8월 말에는 이화북미주동창회 4차총회와 음악회가 Cleveland, OH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며, 뉴욕에서 대형bus를 이용해 많은 동문들이 10시간 이상을 달려가서 참여한 뉴욕동창회의 후원과 활약이 크게 돋보였습니다.

2012년 1월에는 그간 대뉴욕지구동창회가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이화뉴욕동창회초청-모교재학생해외전학장학Program"이 드디어 실현되어, 그 첫 번째 선발 장학생으로 모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보람'학생이 현재 뉴욕지역을 방문 중입니다. 뉴욕동창회에서 장학생 왕복항공권을 보냈으며, 임원진 및 해외프로그램 위원들의 성원과 노고로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더 넓은 세상을 몸으로 느끼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3년 연속으로 이번 해도 정원미달이 많았다는 한국 자율형사립고교 입학신청률이 모교인 이화여고가 유독 지난 해에 연이어 올해 역시 타교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성공사례에 관한 모 신문사의 사설내용을 접하고서, 동문 선배로써 무척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이화교육의 확고한 지침인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일환을 도와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우리 대뉴욕지구 동창회 동문들이 시작한 이번 이화재학생해외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욱 길게 가지를 뻗고 크게 성장해서 모교와 후배들에게 꾸준한 활기를 불어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크고 높게 넓은 꿈을 꿀 수 있는 배움터를 마련해 주는 이화의 동산이 우리 동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이화의 꿈을 펼치는 후학들을 끊임 없이 성원하며 사랑으로 지켜보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이화 동문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대뉴욕지구 동창회장 이정화 올림 (2012년 1월 13일)

뉴욕동창회 임원

(2010~2012)

회장	이정화 (66)	jhleepark@yahoo.com	516-384-6772
부회장	양경숙 (65)	ksmonicson@gmail.com	201-951-9507
총무	전명혜 (69)	mhz123@yahoo.com	516-850-3526
서기	이영희 (66)	baduki@live.com	917-679-5555
회계	최황숙 (71)	hwangsookchung@gmail.com	908-358-5630
홍보	김정인 (67)	junginyang@bnbbank.com	201-394-0025
	오봉희 (74)	bongheelee@gmail.com	201-390-0959
	이화인 (74)	whainkang@gmail.com	201-838-8436
합창단장	이채임 (66)	chaeim.lee1@gmail.com	917-446-2968
기대표	연락처		
기	성명	집전화	Cell
46	한명숙	201-445-7161	201-220-1252
49	박이자	212-595-9866 rijapark@hotmail.com	917-656-3501
51	김송옥	847-208-3304	
52	이보영	718-961-9075 nyspkim@yahoo.com	973-462-2841
53	김옥석	914-686-7131	
54	이양휘	631-642-0187	
55	김용희	201-297-7283	
56	이금영	203-979-9845 kbwoo@yonsei.ac.kr	
57	이선덕	718-961-0914 kasbsc@aol.com	646-417-3323
58	박기준	617-277-0730 keecpark@msn.com	857-272-3958
59	박순자	212-689-5134 soonja567@yahoo.com	201-892-3003
60	이청미	973-696-0364	
61	채영애	732-698-9669	
62	전명자	516-367-8223	516-521-9839
63	손종임	203-926-9755 jilee45@yahoo.com	203-610-2246
64	문성자	914-693-2364 chunchonydf@msn.com	
65	양경숙	973-333-5675 sonmonica@yahoo.com	201-951-9507
66	김선애	212-675-1813 hrysong@gmail.com	
67	어혜숙	201-988-8450 sunsookoh@hotmail.com	
68	전명옥	516-532-1770 syhlaw@verizon.net	917-693-8899
69	김윤	856-308-6997 yunerhee@gmail.com	
70	김정선	516-933-8545 sunnykim25@gmail.com	516-903-3364
71	최황숙	908-665-9560 hwangsookchung@gmail.com	908-358-5630
72	김현애	201-363-9185 hyunaikimhah@daum.net	917-570-2709
73	이상은	201-262-1246 seelie54@hotmail.com	201-952-5117
74	박영옥		201-303-1212 irenenpark7@gmail.com
75	이혜정	551-404-7818 michele@njfm.net	
76	신혜진	516-869-0769 jinseng57@hotmail.com	917-443-8798
77	박미희	516-827-7355 mickymihee@gmail.com	516-508-1188

2011 동창회 연례만찬



2011 동창회 연례만찬: 2011년 2월 12일 DoubleTree Hotel, Fort Lee에서 150여명의 이화 동문들과 이화사위님들, 그리고 동문 2세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뉴욕 이화동문회 연례만찬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양경숙 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 이정화 회장의 인사말과 김정진 북미주 총회 회장의 다가올 북미주총회에 대한 협조요청과 인사말이 있었고, 이화동창회 창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 음악감독을 맡았던 윤현주(67)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최성남(66) 전회장에게 공로패와 이귀자(61)동문의 부군 조남천 이화사위님께 감사패를 드렸다. 2부 순서로 성악가 임옥자 (65) 동문의 축가와 이화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댄스동호회에서 준비한 showcase (Salsa and Cha Cha Cha Medley)가 펼쳐진 가운데 동창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동창회 소식

- **기대표모임:** 2012년 1월 13일 뉴욕동창회 기대표들은 연례만찬 준비를 위하여 12시에 모임(장소: 풍림)을 갖는다. 이 날 모교에서 재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뉴욕에 도착한 이보람 (고2) 학생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 **기쁨과 나눔음악회:** 이채임 (66) 단장을 중심으로한 뉴욕 동문 합창단은 2011년 6월 1일 (수) 저녁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이화 창립 125주년, 동창회 설립 100주년 그리고 새로이 장학재단의 출범을 기념하는 음악회에 참석하였다. 윤현주 교수의 지휘 아래 이화동문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프로그램은 250명의 동문(국내 150명, 국외 100명-북미주)과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할렐루야를 피날레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화만이 해낼 수 있었던 감동적인 음악회라는 극찬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이화총동창회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하였다.
- **동문 이유회:** 2011년 9월 13일 Alpine Boat Basin and Picnic Area에서 6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여 즐거운 피크닉을 가졌다. “작은 나눔마켓”을 열어 잠시동안의 Sale을 통해 908불의 수입을 올렸고 재미있는 놀이와 김옥석(53) 동문이 정성으로 마련해주신 바베큐와 푸짐한 건강식단으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화 사위님들의 참여와 수고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 **이화장학금 전달:** 뉴욕동창회에서는 2011년 5월 모교 이화여고에 \$2,500의 뉴욕장학금을 전달하였다.
- **총동창회 100주년 창립기념 음악제 후원:** 2011년 5월 서울이화총동창회 음악제 후원금 \$3,000을 뉴욕 동창회에서 후원하였다.
- **북미주 총동창회 참석과 후원금 전달:** 2011년 8월 뉴욕동창회에서는 이화의 숭고한 얼이 태동한 역사의 현장 Cleveland, Ohio에서 열린 북미주 총동창회의 제 4차 총회와 음악제에 참여하였고 후원금 \$3,800을 전달하였다. (4차 북미주 총회 사진은 북미주 웹사이트 ewhagirls.net 동창앨범에서 감상하세요.)
- **이화수요모임:** 이화친목단체중의 하나인 수요모임에서 46'선배님으로부터 76'동문까지 30여명이 2011년 12월 28일 Radio City Hall에서 열린 Christmas Spectacle Show를 보았고 연말분위기를 함께 나누었다. 남편, 자제, 며느리와 함께 오신분들도 있었다.
- **뉴욕동창회 이화댄스팀은 1월 11일, 18일, 25일 (수) 11시 15분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연례만찬 프로그램을 위한 댄스연습이 있다.**
(댄스팀 기입신청: 이영희(70) 팀장, 201.694.5728)
- **뉴욕 동창회 합창단은 1월 23일, 30일 (월) 10시 아콜라교회에서 연례만찬 프로그램을 위한 합창연습이 있다.**
(합창단 기입신청: 이채임(66) 단장, 212.362.0041)

북미주총동창회 소식

4차 총회가 Cleveland, OH에서 8/27 ~ 8/29/2011 성황리에 치러어졌다. 이화의 역사의 요람지인 Cleveland는 이화의 창립자인 Scranton 여사가 살았고,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기부자 1호이며 이화를 있게 한 Baldwin 여사가 살던 곳이다. 5차 총회는 2013년 8월에 Philadelphia, PA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5대 북미주 동창회장으로는 김혜경(63) 동문으로 선정되었다.

대뉴욕지구 이화여고동창회의 시작은?

■ 대뉴욕지구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동창회가 생긴 것은

1974년 한명숙(46)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37년째 21대 회장단이다.
그간의 특기사항들로는:

1. 미주 동부지역 합창단을 1986년 조직했다.
2. 이화여고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petition을 내는 일의 발상과 그에 합당한 signature를 받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petition을 과학기술교육부에 제출했다.
3. 이화여고에 매년 장학금을 보낸다. (\$2,500)
4. 2012년 1월부터는 뉴욕동창회가 주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이화여고에서 재학생을 선발하여 미국의 교육과 문화를 시찰하는 기회를 만들어 자율형사립고의 면모를 갖추는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5.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화여고 미주 동부지역 동문회의 회원수자는 29년 졸업기부터 96년 졸업기까지 모두 665명이다.

동창소식

- **임길재(29) 동문:** 동문은 1911년 2월 18일 생으로 동문후배 (이화여고, 이화여대)들이 주선해드린 100세 생신 기념잔치가 2011년 2월 17일 Flushing 금강산 식당에서 있었다. 이화학당, 이화여전문동문이며 한국여성지위 향상에 최선두에서 활약했고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 노력했다. 금년으로 61년째를 맞은 그의 뉴욕생활은 1949년 브루클린의 세인트 케더린스 병원으로부터 시작, 일본(동경여전)과 한국(경성제대)에서 이미 마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정부 주선으로 미국에서 다시 밟고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신적 안식처였던 뉴욕한인교회, 그리고 자신이 빛을 끌었다고 생각하는 모교 이화동창회 등과 인연을 맺고 살아왔다고 한다.
- **한명숙(46), 김옥석(53) 동문:** 9월 플러싱 아사원 식당에서 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정성껏 마련하여 주셨다.
- **이보영(52) 동문:** 지난 3월 24일 플러싱에 있는 아리수 식당에서 연례만찬을 끝내고 수고한 임원진을 격려해 주셨다. 참석자는 이보영선배와 부군이신 김박사님, 이정화(66), 김옥석(53), 김수자(61), 이군자(63), 양경숙(65), 한명숙(46), 최황숙(71), 오봉희(74), 이화인(74), 박영자(56), 이영희(66), 김순희(75) 이었다.
- **김대실(56) 동문:** 3월 17일~20일 맨해튼에서 열리는 ‘뉴욕영화제(Korean-American Film Festival New York/ www.kaffny.com)’에서 김대실 감독의 다큐멘터리(4/1, Wet Sand, Olivia Story 등등)를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오는 2월 중에 출판 (Looking for Don: A Meditation)을 계획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Don과 계획했고 그를 그리워하며 만든 Memoir Blog ([Shoulderfriends.wordpress.com](http://shoulderfriends.wordpress.com))에 많은 이화동문들의 방문과 피드백을 기대한다. 주성남(70) 동문의 자제 김대훈(David)은 KAFNY의 회장으로 본행사를 이끌었다.
- **김자현(58) 동문 별세:** 이화여고, 이화대학 영문과를 졸업, 미스 한국일보에 당선, Columbia에서 박사학위를 마쳤고, 동양사 교수로 재직하며 “Lady Hae Kyung's Memoir”를 출판하였고, Columbia 교수로 재직했었는데, 유방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1년 1월 31일에 별세하였다.
- **이귀자(61) 동문:** 일본 신원전 제 43회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2011년 8월 28일부터 1주일간 일본 동경시 동경교통회관 미술관에서 전시가 있었다. 또한 부군되는 조남천장로도 사진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는데 조남천작가는 2009년도(제 41회)에도 은상을 수상한바 있다.
- **박임자(66) 동문:** 박(최)임자씨는 philadelphia 근교에서 규모가 큰 아시아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Penn Asian Senior Service)을 성공적으로 운영, 지난 11월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으로부터 Community Health Leaders Award 와 \$125,000의 fund를 받았다. www.communityhealthleaders.org/news_features/pr/89788
- **최성남(66) 동문:** 2011년 “이화를 빛낸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5월 30일 모교개교기념행사에서 표창받았다. 현재 세계 결식아동을 돋는 Global 어린이재단 뉴욕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남동문은 양정인(67)뉴저지회장, 한혜진(67)부회장, 전명혜(69)총무와 함께 2011년 7월 9일에 기금모금만찬을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어서 많은 기금을 모았다. 오바마대통령과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의 메세지 대독으로 시작하여 이배용국가브랜드위원장의 기조연설 “소통과 화합과 나눔의 정신”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www.globalchildren.org
- **조용남(67) 동문:** 마취과 의사로서 2011년 5월 29일에서 6월 4일까지 6일간 Honduras 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였고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 Bolivia 에 가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명의 한인 의사들과 간호원 한명과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 **이명신(67) 동문:** 뉴욕가정상담소 의사로서 일하며 상담소를 위해 16 box의 디자이너 여성복을 기증을 받아 2011년 10월 뉴저지와 후러싱에서 바자가 이루어져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상담소 transitional housing 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 \$15,000불을 유치했다.
- **김명희(68) 동문:** 오랜 동안 NY에서 중견작가로 활동하던 동문의 개인전시회가 오는 2012년 1월 12일부터 2월 25일 까지 Art Projects International (434 Greenwich St, NY, NY 10013)에서 열린다.
- **69 동문:** 2011년 9월 17일 13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이 날 전 미국 감리교 여 전도회 leader로 leadership을 훈련 시키는 정성혜 동기의 인도아래 자신을 성찰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 12월 3일 8명의 동기들이 최 용선 동기 집에 모여 Allergy 전문의인 ‘신은호 동기’의 플라스틱용기들에 열이 가해질 때 나오는 환경 홀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 영향들 등 건강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 **옥성숙(71) 동문:** 뉴욕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 동문이 지난 2011년 12월 8일 대통령봉사상을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했다. 뉴욕가정상담소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는 1989년에 한국에서 여성들을 위한 법률상담소를 설립한 ‘이태영박사’로부터 영감을 받아, 폭력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뉴욕에 설립된 단체이다.
- **조경희(72) 동문:** 개인전이 지난 10월 3일부터 열흘간 FGS Gallery 에서 있었고, 숨은 소질을 개발하여 개인전시회를 연 동문께 축하의 메세지를 전한다.
- **74 동문:** 이화인(74), 최성남(66) 동문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국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회의에 뉴욕대표로 참석하여 “글로벌 한민족여성 그린 코리아를 이끌다”는 주제의 토론에 참가하였다. 33개국에서 250명이 참석한 KOWIN 회의는 세계각국에 흩어져있는 한인지도자여성들이 모여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행사이다. www.mogef.go.kr
- **77 동문:** 2008년 첫 만남을 시작으로 매년 2~3모임을 갖고 있는 77동기는 2011년 2월 황순덕 동문이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았고, 4월 모임중에는 20년간 소식이 끊어진 김금란 동문을 드라마처럼 우연히 만났으며 이경하동문의 하버드대학에 자녀를 보낸 8인의 부모들이 함께 쓴 책 출판기념회도 있었다. 올해 마지막 모임은 12월 4일 뉴저지 이원애동문 집에서 6명이 모여 재미있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창립 125주년, 동창회 100주년 기념 음악회

이채임 (66)

기쁨과 나눔 음악회

2011년 6월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창립125 주년, 동창회 100주년을 기념하며, 장학재단 출범을 축하하는 “기쁨과 나눔의 음악회”가 이화 가족, 유명인사들 등 감동의 눈시울을 적신 2천 관객들로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249명의 동문합창단, 음악계의 정상에 있는 많은 동문 soloist들로 무대가 수놓은 듯 아름다웠고, 125년 이화의 꿈, 사랑, 기상을 다시 한번 널리 알리는 감동적이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행사였다. 역시 “이화”만이 할수있는 행사였다는 후평을 들을 때마다 “이화”를 마음의 고향으로 갖고있는 우리 이화인의 궁지를 다시금 느끼게 했다. 국내 10여개의 신문들이 이화 음악회에 대한 감동의 기사를 실었으며 Classic TV Station에서 음악회를 3번 방영하기도 했다.



이화인의 찬란한 무대

윤현주(67) 교수의 총 지휘하에 국내 음악계 정상에 있는 이화동문들과 이화동문 자체들로 구성된 26명의 soloist 들 그리고 249명의 이화 연합 합창단들이 펼친 프로그램 하나 하나가 우리 이화의 전통과 궁지를 대변하는 홀륭함 그 자체였으며 음악회는 동문 음악인들의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신한 아름다운 무대였다.

Ewha Festival Orchestra(31명) 가 음악회의 1부의 막을 올렸으며 10명으로 구성된 Ewha Professional Singers의 아름다운 선율, Schumann Piano Quartet E 의 Op47(박혜영, 김화림, 기성진, 이정란), Puccini 의 꽃의 이중창("Madame Butterfly"중), 여성 듀엣 (김영애, 정수연), “동양의 공주”서곡 for 8 Hands 2 Pianos (신수정, 이경숙, 이연화, 서계령)의 아름다운 선율로 1부를 마치고 정명화동문의 감미로운 첼로 연주(반주 한영혜)로 2부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이화 오페라앙상불이 서울대학교 Opera Singers들(반주 이지은)과의 협연으로 4곡의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곡들로 무대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마지막 순서…… 윤현주교수의 지휘로 249명의 배꽃들이 한 마음으로 울려퍼진7곡의 합창…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게한 감동적인 순간들 … 미국 NY 33명, LA, Canada 68명, 한국 127명 졸업생 – 대선배 한명숙(46), 최연소 김은영(2001) –으로 구성된 이화연합합창단의 3곡이 끝난후 재학생 21명들이 무대로 올라와 동창합창단과 합세하여 맨앞줄에 서서 “아무도 모르라고, 새타령, 그리운금강산, 할렐루야”를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 만든 아름다운 화음은 여러 관객들의 감동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물결하고 마음 뿌듯한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화교가를 모든 이화 가족들과 함께 목청 높혀 부르며 감동의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Korean women make pilgrimage of thanks to Cleveland for gift of school

Korean women make pilgrimage of thanks to Cleveland for gift of school

Published: Wednesday, August 17, 2011, 5:10 AM

Updated: Wednesday, August 17, 2011, 10:00 AM

By Robert L. Smith, The Plain Dealer

John Kuntz, The Plain Dealer

(중략) … A little more than 125 years ago, Baldwin, a member of the Ladies Aid Society at her Methodist church in Ravenna, contributed \$88 to start a school for girls in Korea. It was a time when Korean women were kept veiled, unschooled and homebound.

With that donation, another local Methodist, Mary Scranton, founded Ewha Haktang – Pear Blossom School – which grew into one of Asia's top schools for women. From Ewha's graduating classes come female educators, scientists, business executives, government leaders and world-class musicians.

As Ewha approached its 125th anniversary, local alumni – who number about two dozen women – persuaded their alma mater to hold a celebration in the city of the founders; to finally thank Cleveland for its little-known gift.

(중략) … The honors fall most squarely on the region's United Methodist Church, which in the late 1800s sent missionaries to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to spread the faith. One of those missionaries was Mary Scranton, a plucky New England widow who had moved to Cleveland in about 1882.

With her son, William, a doctor, Scranton sailed to Korea in 1885, becoming its first female missionary. She was 52.

While William Scranton opened medical clinics, Mary Scranton opened minds. Armed with Baldwin's donation, Scranton in 1886 founded a girls' school in a nation that never had one before.

(중략) … Baldwin made her donation in 1883, a year after her husband died, after reading missionary accounts of a reclusive nation where girls were not considered worth educating, said Sarah Fast, a retired teacher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heritage foundation.

'She thought they should be able to go to school and to live like Christians,' Fast said.

Much more is known about Scranton, who lived out her life in Korea, where she is honored with statues, commemorations and a leadership training center. On a visit to Ewha in 2009,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drew cheers when she described 'Madame Scranton' as one of her role models.

Ewha alumni in Greater Cleveland, who represent a variety of skills and careers, talk passionately of the power of seeds. Lucinda Baldwin's donation. Mary Scranton's devotion. That's what Ewha grew from. Those seeds. It all started here,' said Judy Choi, a graduate of Ewha Girls' High School and a founder of a Kumon Learning Center in Broadview Heights. 'That's why we're so excited about our 125th celebration. We are coming back to where it all began.'

Ewha graduates are expected to arrive from around the world for anniversary events that climax Aug. 27 with a concert of classical and Korean music at the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Reunion activities also include a worship service at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Ravenna, a lecture at the Cleveland Museum of Art, and a bus trip to a grave site and a farmhouse in Streetsboro.

Lucinda Baldwin no doubt never knew the price of immortality. It was \$88.



John Kuntz, The Plain Dealer Local alumni members of Ewha Haktang, South Korea's top school for women (from left), Susan Whang, Young Hee Kim and Judy Choi, listen during a planning meeting in July at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Brecksville.

*이상은 2011년 8월 17일자 클리블랜드 일간지에 기재된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제4차 북미주동창회 총회참석과 여행후기

이군자 (63)

토요일은 태풍 아이린이 불어닥친다는 뉴스를 들으며 우리 뉴욕팀 24명은 이채임(66)을 단장으로, 8월26일 금요일 제4차 북미주동창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6시 Flushing을 출발하여 Cleveland로 향했다. 임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고 윤현주(67)교수의 지휘 아래, 서울과 LA등 타지역에서 온 동창들과 합류해 연습에 들어가니 날아갈 듯 아름다운 화음을 피곤이 확 달아난다.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기뻐하며 각 지역 대표들과 이사들은 임원회에 참석했다. 다음날 27일 토요일 아침식사 후 세미나에는 Dr. Leslie Cho의 심장질환 예방에 관한 강의와 고혜령 총동창회 부회장의 이화역사에 대해, 또 송보경 총동창회장은 한국 소비자연맹의 운동에 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고 점심식사 후에는 김정진(66)회장의 환영인사, 강순자(62) 이화여고교장과 총동창회장의 인사와 정창용(66) 전교장이 장학재단 발족과 모금 경과보고를 해 주셨다.

참석자들과 가족들은 시내관광과 박물관 관람에 나섰고, 학창단원들은 Cleveland Institute of Music의 Kulas Hall로 향했다. 8시에 시작된 음악회는 청중석을 가득 채웠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 55명의 연합창성이 끝 순서로 헨델의 할렐루야를 부르고, 교가를 부를 때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터져나오는 합성— 모두들 눈물이 글썽 28일 일요일 주일에는 아침식사 후 여경희 총무의 사회로 열린 총회는 각 지역 동창회 보고와 경과보고 등이 있었고, 다음 제5차 총회로 결정된 필라델피아와 회장 김혜경(63)의 인준이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Ravenna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로 향했다. 이화학당의 태동이 시작된 바로 Baldwin 여사가 다녔던 교회,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보며 찬양을 드리고, Baldwin여사의 가족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감사를 드렸다. 저녁 8시 신공법(70) 준비위원회의 사회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어눌하면서도 위트가 넘치는 송보경 총동창회장은 오늘을 위해 새로 맞추어 왔다는 녹색 자켓을 벗어 김정진 회장에게 입혀주었다. 체격이 완연히 다른 두사람인데, 웃이 너무나 잘 맞았다. 김정진회장의 말 '2년후 필라델피아에서 총회가 열릴때 이 웃을 김혜경 회장에게 넘겨 주겠다'고. 제 3대 회장이었던 김수자(61) 님과 음악회 총감독을 맡은 윤현주(67) 교수 그리고 각 지역 동창회에서 수고한 동문들께 배꽃공로상이 수여되었고 뉴욕에서는 한명숙(46) 이보영(52) 두 선배님께서 수여 받으셨다. 김정식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 그동안 이화에 내려진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허락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맛보는 확신이 생겼다. 장기자랑 시간에서 뉴욕팀은 '뉴욕 뉴욕' 춤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고 66년 동문들은 새로워진 백조의 호수를 선보여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그 외에 많은 동문들이 끼가 넘치는 재주들과 춤을 선보였다.

29일 월요일 아침 김영희(67)의 사회로 간단한 폐회식이 있었다. 이화동창 10여명 밖에 안되는 클리브랜드에서 성대한 음악회와 180여명이 참석한 만찬과 \$12,500 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 등등 이화인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후 다시 만날것을 약속하며, 인사를 나누고, 41명을 태운 버스는 Ohio Wesleyan University로 향했다. 감리교 창시자인 John Wesley(1703-1791)의 뜻을 기려 세워진 이 대학은 이화와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학교를 통해 배출된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봉사했고, 한국여성의 위치를 새롭게 바꾸었던 김활란, 김옥길씨 등이 여기서 공부했고, 이화여대에서 발견된 영자신문들까지, 지난날의 기록들을 찾아보는 감회 또한 컸다. 정성이 담긴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았고, 총장이 직접 우리를 환대해 주었다. 다시 Glenlaurel로 향했다. 도중에 한국식당에 들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도착했을 때는 침침한 밤중이었다. 외등도 없고, 포장도 되어있지 않은 숲으로 울창한 좁은길을 용케도 찾아 들어가니, 인형의집 같은 예쁜 cottage에 짐을 풀고 밖에 있는 야외 whirlpool에 몸을 담그니 바로 머리위에 와 있는 별들이 와르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다음날 club house 뒤편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고, 아침식사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실내 구석구석을 구경하며, 모두들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다. 버스를 타고 Hocking Hill State Park에 갔다. Indian들이 상주했던, 빙하시대에도 얼지 않았다는 깊숙한 반 동굴과 같은 곳을 구비구비 들며 산책을 하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고....돌아와 저녁식사 후 Scottish bagpiper 가 우리를 위해 연주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camp fire 가 시작되었다. Georgia에서 온 이인순(65)의 기타반주로 우리들은 끝없는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춤도 추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한 이렇게 타 오르며 주위에 빛과 온기를 전하리라.

모교 소식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3.06대 1)을 보인 이화여고는 자율고의 살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이 학교는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학부모 설명회에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주겠다"는 혼해빠진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해외, 농촌 봉사활동, 외국 학교 교환학생 파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려야 겨우 알 수 있는 정보를 학교가 직접 제공하며 교사들이 진학지도를 책임지겠다는 진정성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을 샀다." (중앙일보 2011.11.25일자 사설에서)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율고정책이 그 의미와는 달리 미달사태를 보이며 고심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화는 차별화를 도입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화가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된 후 유일하게 경쟁력이 높은 사립학교(3.06:1)로 성장하기 까지는 대뉴욕지구이화동창회의 역할이 있었다. 이군자(63)동문이 이화여고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petition을 내는일의 발상과 그에 합당한 signature를 받기시작하여 2009년 2월 petition을 과학기술교육부에 제출했고 7월에 여자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자율형사립고로 선정되었고 올해(2012년)는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오던 재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현하게되었다. 그 첫번째 재학생 이보람(고2)이 오는 1월 9일에서 16일 사이 뉴욕에 머물면서 학교방문체험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등 town 행정 시찰, 뉴욕의 유명 대학인 Columbia, NYU, 그리고 미술관 MET, MOMA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뉴욕동창회장단 및 이군자(63) 동문과, 최황숙(71) 동문, 해외연수 프로그램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뉴욕동창회 (516-384-6772) 또는 이군자(201-232-1989) 동문께 연락이 가능하다. 이보람학생은 체류기간 중 1월 13일에 있을 동창회 기대표모임에 참석한다.



이화갤러리



02. 17. 2011 - 임길재 박사 100세 생신연



06. 2011 - 뉴욕합창단 남해안 여행



03. 24. 2011 - 동창회 임원 모임



09. 13. 2011 - 이화 피크닉



08. 28. 2011 - 북미주총회 뉴욕 장기자랑 "뉴욕 뉴욕"



08. 28. 2011 - 북미주총회 "뉴욕공로상" (한명숙, 이보영)



08. 28. 2011 - 이화여자고등학교 북미주동창회 제4차총회
Cleveland OH.



01. 09. 2012 - 뉴욕동창회 재학생 해외 프로그램
이보람 (고2)

▶ 2012 동창회비 납부명단 (2011년 12월 31일 현재)

한명숙(46) 김용희(55) 박기준(58) 김영수(62) 서재숙(64) 양경숙(65) 이옥순(65) 이채임(66) 원인순(66) 전명혜(69) 김재옥(74)
박소화(46) 홍중순(55) 이경자(59) 송강자(62) 김영민(64) 원건숙(65) 박경원(66) 김선애(66) 박임자(66) 최황숙(71) 한윤희(74)
박리자(49) 김대실(56) 김학주(59) 정연자(62) 김영서(64) 전금옥(65) 이정화(66) 박혜자(66) 어혜숙(67) 이영숙(71) 오봉희(74)
민인숙(50) 유병숙(56) 조소자(60) 전명자(62) 김증자(64) 정원(65) 정진영(66) 최성남(66) 신숙희(67) 이바렌수(71) 오성혜(74)
김기자(51) 전월수(56) 이청미(60) 이군자(63) 안명희(64) 송경순(65) 지숙희(66) 박선희(66) 김선희(67) 김양신(71) 이화인(74)
이보영(52) 이선덕(57) 조성임(61) 이학업(63) 김근애(65) 전경옥(65) 손미(66) 김애리(66) 소성숙(68) 이은미(71) 김성혜(75)
김옥석(53) 박경원(58) 김수자(61) 이수희(63) 김대숙(65) 우인숙(65) 이영순(66) 김광은(66) 노연숙(68) 김현애(72) 이승아(76)
최정숙(54) 조희재(58) 이귀자(61) 이완실(63) 김미봉(65) 임옥자(65) 이영희(66) 김복영(66) 김광희(69) 서난숙(72) 신혜진(76)
오진환(54) 김천희(58) 박수자(61) 손종임(63) 김연규(65) 이금화(65) 기화숙(66) 심재경(66) 이상은(69) 김금숙(72) 김순희(76)
원숙자(54) 유문희(58) 채영애(61) 김은애(64) 백영숙(65) 김대봉(65) 김원경(66) 김춘영(66) 남광희(69) 남광선(72) 박미희(77)
김영주(55) 김정혜(58) 김명세(62) 문성자(64) 손인경(65) 임의화(65) 유기자(66) 이종례(66) 김윤(69) 양혜숙(72) 김옥경(77)

▶ 후원금 납부명단 (2011년 12월 31일 현재)

박소화(46) 오진환(54) 박경원(58) 인청자(61) 손종임(63) 박경원(66) 박선희(66) 전명희(69) 최황숙(71) 박미희(77)
한명숙(46) 김용희(55) 김천희(58) 채영애(61) 이완실(63) 김애리(66) 신숙희(67) 임수경(69) 김신애(74) 송미숙(83)
박이자(49) 나완균(55) 김정혜(58) 박기원(62) 문성자(64) 최성남(66) 김선희(67) 이상은(69) 오봉희(74) 강선희(52)
이보영(52) 전월수(56) 조소자(60) 이군자(63) 서재숙(64) 이정화(66) 양정인(67) 주성남(70) 이화인(74) 이화목요모임
김옥석(53) 이선덕(57) 이청미(60) 이수희(63) 김은애(64) 김선애(66) 이명신(67) 이영희(70) 안혜숙(76) 이화수요모임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26 Kelburn Ct., Hamburg, NJ 07419
Tel (973) 864-5053, (516)384-6772

Stamp